생명 살리는 교회
예수 따르는 교회



형제의 연합, 함께하는 즐거움!

전수의 역설

베푸는 사람이 더 받습니다

지난 금요기도회에서 시편 78편을 함께 묵상했습니다. "우리가 들어서 아는 것을 자녀들에게 숨기지 않고 다음 세대에 전해 주리라"(시 78:3-4). 신앙은 한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수되는 것입니다.

그런데 8절이 묘합니다. 그 "전수해야 할 어른 세대"가 사실은 고집 세고 반항적이었다고 말합니다. 부족했던 세대 보고 어떻게 다음 세대를 가르치라 하시는 걸까요.

대부분 사람은 "나는 부족해서 못 가르친다"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를 말합니다. 부족하기 때문에, 가르치는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. 가르치는 자리가 곧 자기 결핍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.

흥미로운 것은, 전수하는 사람이 더 지혜로워진다는 사실입니다. 가르치면서 더 깊이 이해되고, 나누면서 더 풍성해집니다. 우리 교회에서 매일 아침 성경 읽고 단톡방에 감동을 나누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. 받은 사람만큼이나, 아니 그보다 더, 나눈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.

전수의 삶은 우리를 결핍의 자리로 이끕니다. 내 시간과 열정을 누군가에게 베풀 때, 비로소 내 한계가 보입니다.

그리고 그 자리에서 "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"(약 1:5)는 말씀이 살아납니다. 부족함이 기도가 되고, 기도가 지혜가 됩니다.

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우신 분,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. "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"(행 20:35)고 하셨습니다. 오늘 누구에게 한 마디라도 나누어 보십시오. 받은 은혜가 더 깊어질 것입니다.

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며 오목사 드림

예배 순서

묵도와 부름		인도: 오종향 목사
사도신경		
찬 양		인도자+찬양팀
합심 기도		
성경 봉독	시 139:13-18; 127:1-2	일어서서
설 교	지으신 몸, 잠으로 회복됩니다	오종향 목사
결단의 침묵		
응답 찬송	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	
헌 금		
안 내		
축 도		
점심 친교		
조별 모임		

성경봉독	청소정리
5/31 조하원	5/31 조이조
6/7 이시원	6/7 휴 조
6/14 이세린	6/14 청소년부
6/21 김하람	6/21 들풀조
6/28 오연총	6/28 헤세드조

교회 소식 및 안내
QR코드로 확인하세요

유치부 주일예배
섬김의 왕

2층 교육부실
11:00-12:10

초등/청소년 양육반
예수마당 / 어성경 구약반

2층 교육부실
초등부: 10:00-10:50
청소년부: 13:00-14:00

금요기도회
엘리야의 능력 기도 (1)

3층 예배실
금요일 저녁
19:30-20:30

리딩지저스
(열왕기상 4장,
역대하 1장, 아가서, 잠언 1~23장

담임: 오종향 목사

- 교육: 최은총 전도사, 교사: 유은희
- 조장: 김성배, 김순영, 김재강, 김현지, 손이숙, 우문주, 유은희, 이수민
- 찬양팀: 김성배, 이성은, 노영숙, 은원철, 문영식
- 후원 선교사: 김남진/김성은 (유럽 기도 선교), 임일혁/송경남 (캐나다 이주민 선교), 하**/강** (동남아시아 무슬림 선교), 조샘 (라이프스타일 선교운동)
- 자비 사역 (구제, 구호): 유니시드(북한 이탈 학생 장학), 시선오브(자립준비청년 돌봄), 이천 꽃피는봄날 보호종료아동(생계 지원), 소망을 찾는 이(노숙자, 쪽방촌)

오늘의 말씀

다같이 일어서서, 대표 낭독자: 조하원

시 139:13-18; 127:1-2

시편 139편
13. 주께서는 내 장기를 지으셨고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.
14.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. 주께서 나를 경이롭게, 멋지게 지으셨습니다.
주의 작품은 정말 놀랍습니다. 내 영혼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.
15. 내가 아무도 모르는 데서 지어지고 땅속 가장 아래쪽에서 지음을 받았을 때
내 것 하나하나가 주께 숨겨진 것이 없었습니다.
16. 아직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내 틀을 주의 눈으로 보셨고
아직 아무것도 없을 때도 나를 구성한 재료들이 이미 낱낱이 주의 책에 적혀 있었습니다.
17. 오 하나님이여, 주의 생각이 내게 너무나 귀합니다! 그 수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요!
18. 내가 다 셀 수 있다면 모래알보다 많을 것입니다.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와 함께 있습니다.

시편 127편
1.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않으시면 건축자들은 헛수고하는 것이다.
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지키고 서 있는 것도 헛일이다.
2. 너희가 일찍 일어나는 것도, 늦게까지 자지 않으며 고생해서 얻은 것을 먹는 것도 헛되다.
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잠을 주시기 때문이다.

다같이: “주여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받겠습니다.”

소그룹 나눔

1) 오늘 설교를 듣고 가장 와닿은 한 가지는?

2) 오늘 주신 메세지를 내 삶에 연결한다면?

뉴시티교회 선교 동역 소식 및 기도제목

OMF(Overseas Missionary Fellowship)_이주민 선교: 임일혁 선교사



[소개]
-한국OMF는 국내 최초의 국제선교단체로 1980년에 시작되었고, 이제는 세계 각국에서 파송된 1,400여명의 선교사들과 함께 동아시아 19개의 필드에서 '동아시아의 신속한 복음화'를 위하여 사역 중에 있습니다.

[사명과 비전]
-우리의 사명: 우리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을 동아시아인과 함께 나눔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.
-우리의 비전: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동아시아의 각 종족들 안에 자기 종족을 전도하며 타종족을 선교하는 성경적 토착적 교회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를 소망합니다.

[사역]
-12월 24 일 중국인 교회에서 성탄축하겸 불신자 초청 예배를 드렸습니다. 저희 부부와 청소년 그룹이 영어 찬송 과 중국어 찬송을 준비하여 불렀고 임일혁 선교사가 크리스마스와 관련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.
-중국인 친구가 운영하는 베트남 식당에서 중국인 가정들과 새해 모임을 가졌습니다. (아이들 포함하여 50 명) 이들과의 관계가 계속 이루지고 이들 가운데 있는 불신자들이 구원 받는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.

[기도제목]

-중국인 교회 청소년 모임을 위해 (매주 금요인 저녁 6 시-9 시): 모임에 나오는 청소년/청년들이 사복음서 공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또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가 이들 중에 계속 있도록.

-모임들과 멘토링들을 잘 준비하고 섬길 수 있도록. (매주/격주, 대면/비대면)